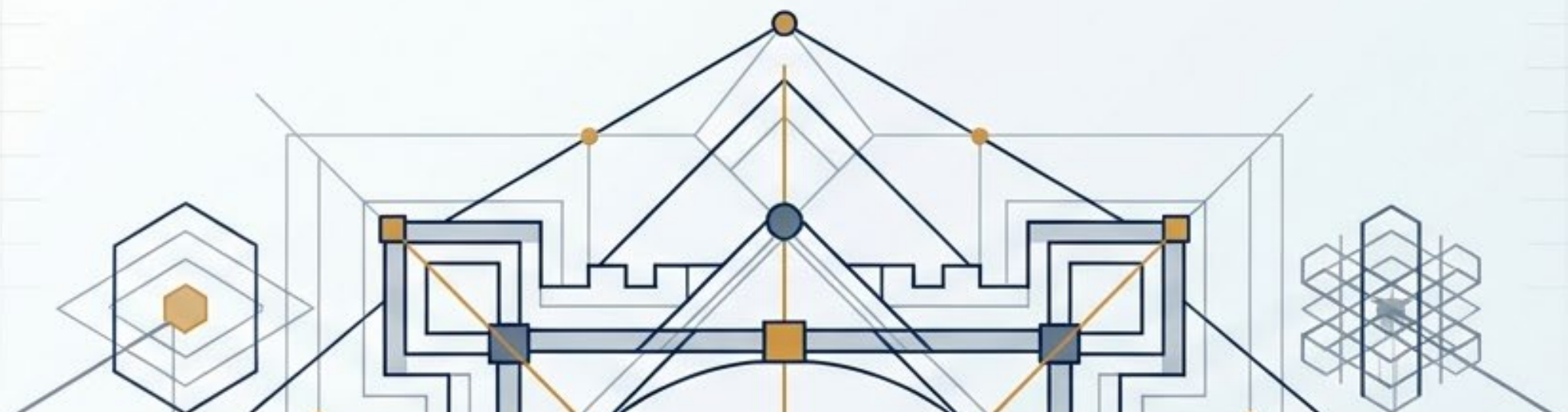




제7강 유다서

믿음을 지키는 교회 공동체의 책임

5/4/2026

26-11-11 공동서신(김문경)

——— 믿음을 지키는 교회 공동체의 책임 ———

유다서: 영적 요새의 설계도

고대 유대교 전승을 통한 이단 방어와 정체성 확립

26-11-11 공동서신(김문경)

—— 믿음 지키는 교회 공동체의 책임 ——

5/4/2026



핵심 메시지: 전략적 방어 선언문

유다서는 단순한 경고장이 아닙니다. 은밀히 침투한 반율법주의와 무신론적 이단에 맞서, 사도적 권위와 유대교 묵시 전승을 결합하여 교회의 정체성(정통성)을 지켜낸 전략적 방어 선언문입니다.

5/4/2026

26-1학기 공동서신(김문경)

3

방어선의 문학적 구조



단순한 이단 반대 전단지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고안된 사도적 편지 형식의 구조물입니다.

내부로부터의 붕괴: 공동체를 위협한 자들



은밀한 잠입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4절).
외부 공격이 아닌 공동체 내부로 몰래 잠입함.

신앙의 부정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부인하는 무신론적 행태.

만찬의 오염

교회의 핵심 교제인 '애찬(아가페 축제)'에 참여하며
정착한 지도자 그룹일 가능성(12절).

권위 훼손

전통적 경계를 허물고, 천사(영적 권위)를 경시함(8절, 10절).

유다서의 위기는 방랑 설교자들의 단순한 잡음이 아니라,
교회의 심장부(애찬)에 뿌리내린
내부 지도자급 이단의 위협이었습니다.

대적자의 정체: 두 가지 진단 모델



가설 1: 초기 영지주의 대변자

주장

- 예수 그리스도 격하, 영/육 이원론(19절), 천사 부정.

반박 (X)

- 영지주의의 핵심인 '원형적 이원론'이 본문엔 부재함. 영/육의 대립은 영지주의가 아닌 헬레니즘-유대교 지혜 사상에 뿌리를 둠.

26-1학기 공동서신(김문경)



가설 2: 바울 신학의 이단적 변질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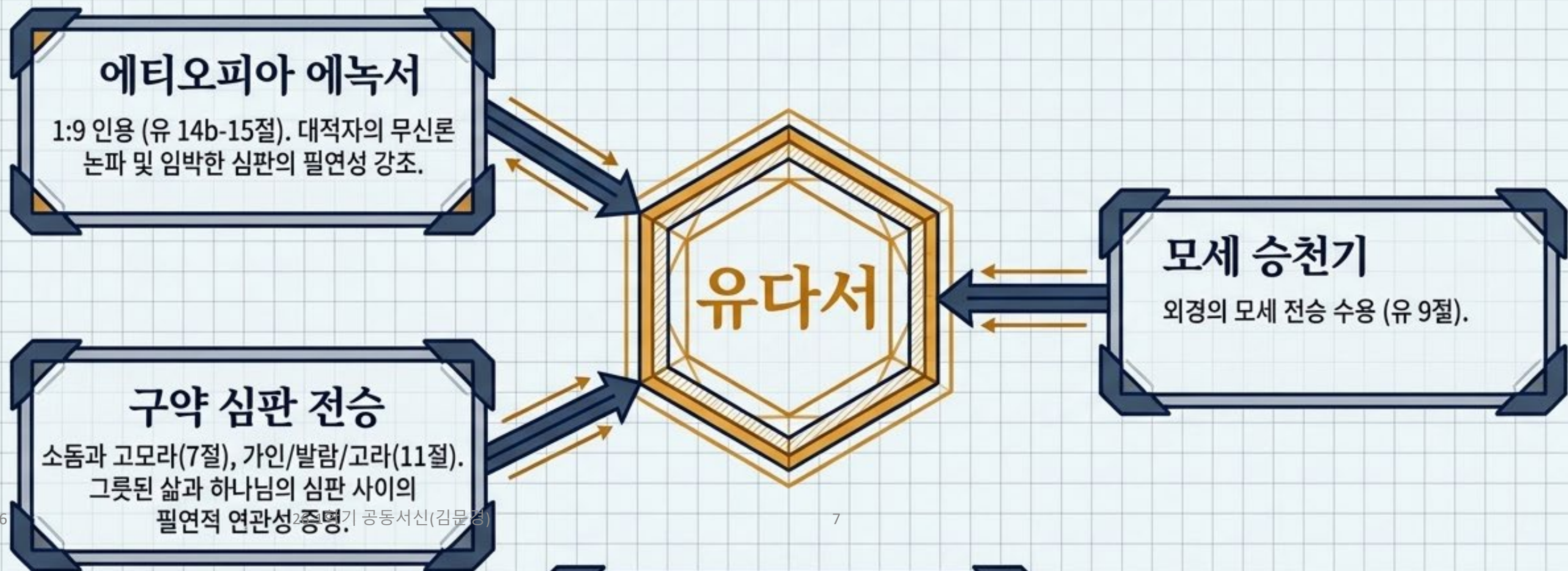
- 하나님의 '은혜'를 '무절제(반율법주의)'로 오용 (롬 3:8 참조).

증거 (O)

- 고린도전서 6:3, 골로새서 2:18-19 등 바울 서신에서 나타나는 '천사 경시' 모티브와 일치.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으로 자처.

학계의 우세한 결론: 대적자들은 바울을 내세우며 열광주의적 교훈을 대변하고, 바울의 칭의론을 반율법주의로 오해한 무리들입니다.

전승의 재수용: 영적 무기고



5/4/2026

2026년 4월 5일 공동서신(김문경)

7

전승의 기독교화

유다서는 단순히 과거 문헌을 인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대 유대교 묵시 문헌을 대적자를 방어하는 기독교의 '영적 무기'로 적극 재조립했습니다.

설계자의 미스터리: 누가 기록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유 1:1)”



사도 유다
(눅 6:16)



바사바 유다
(행 15:22)



예수의 친동생 유다
초기 기독교 선교 활동 참여.
유대 그리스도교적 사상과 부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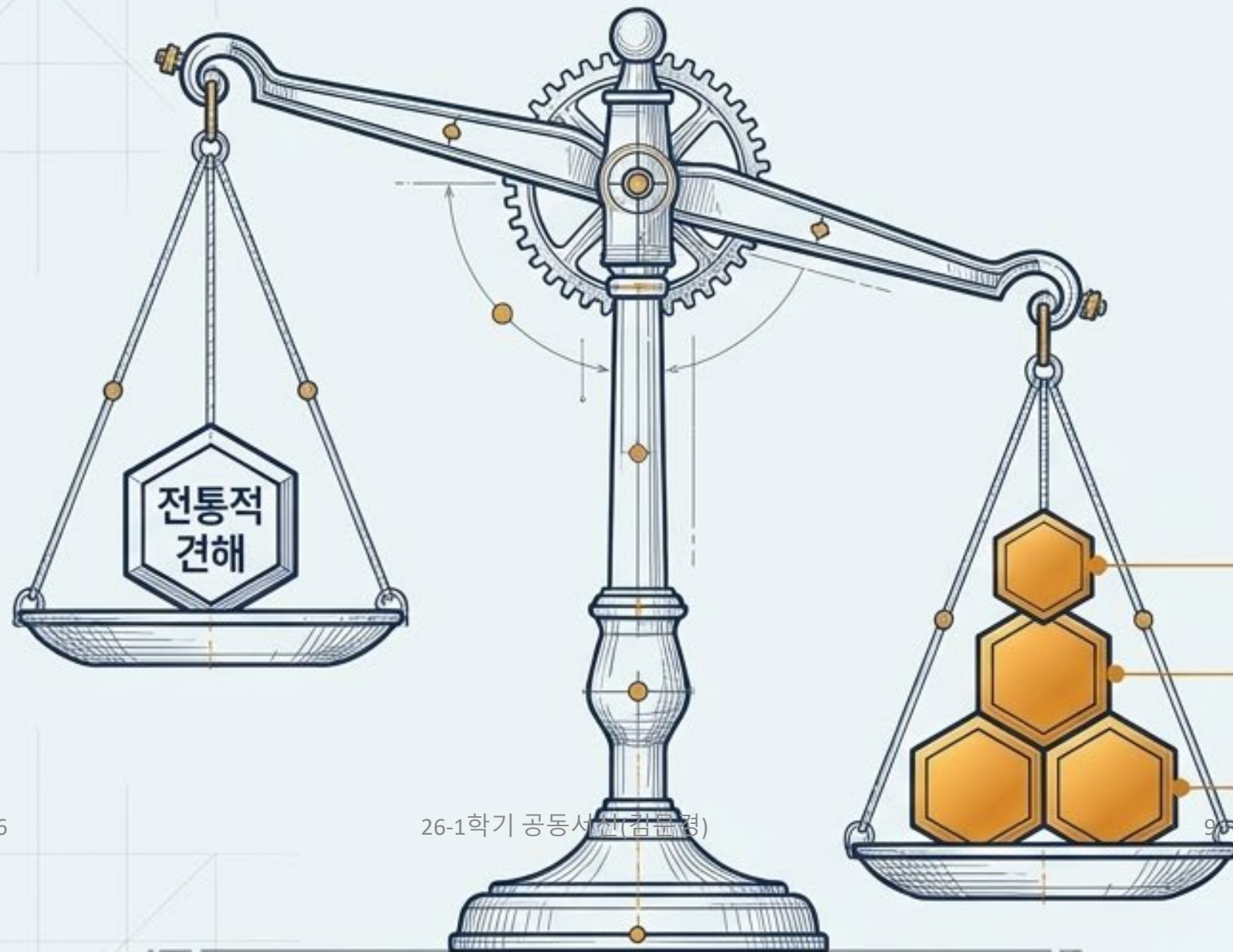
익명의 저자
후대 유대 그리스도인이
'주의 동생 유다'의 권위를
빌려 기록한 차명문서

5/4/2026

26-1학기 공동서신(김문경)



차명문서 가설을 지지하는 4가지 주장



호칭의 문제

- 스스로를 '예수의 동생'이 아닌 '야고보의 동생'으로 칭함.
(야고보의 권위에 기대려는 후대의 흔적)

'형제'의 의미

- 신약에서 '형제'는 혈육 외에도 '동역자'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음(골 1:1).

시대적 배경

- 정통과 이단의 논쟁, 종말 시 거짓 교사의 등장(3, 20절)은 사도 이후 교회의 전형적 특징.

과거의 회상

- 17절에서 사도 시대를 '미리 한 말'로 회상하며 스스로를 후기 시대로 편입시킴.

5/4/2026

26-1학기 공동서신(김문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유대 그리스도인이 실제적 논쟁(이단 방어)에서 사도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유다의 이름을 빌려 유다서를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으나 말씀의 기원이 유다에게 귀속하므로 주의 형제 **유다**가 본 서신의 저자이다.

형성 배경: 기록 시기와 지리적 좌표



5/4/2026

26-1학기 공동서신(김문경)

10

AD 80 ~ 100년 경

유다라는 가명(위서) 사용이 의미를 가지며, 묵시적 사상 요소가 유대 그리스도교 내에 적극적으로 수용되던 시기.

교회의 정체성 확립: 선명한 경계선 긋기

흔들리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 (Rescue Mission)
블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라! (22, 23절)

The Identity

거룩한 요새

- 부름 받은 자 (1절), 거룩한 자 (3절)
- 순결함, 종말론적 기대감 속에서의 삶.
영생으로 이끄는 구원(21절)

The Threat

파멸의 길

- 예수 그리스도 부인, 무신론적 방종,
극도의 무율법적 생활
- 비도덕적 행위, 권위 멸시
(심판의 대상)

5/4/2026

26-1학기 공동세션(김문경)

11

유다서의 신학적 메시지

- '단번에 성도들에게 전해진 믿음' 수호.

믿음을 위한 투쟁

- 사도적 전승은 죽은 화석이 아니라, 거짓 교훈에 맞서 싸우는 역동적인 기준점.

- 오시는 주님에 대한 강력한 기대.

심판의 기독론

- 천사들과 함께 심판을 위해 나타나실 그리스도. 대적자에 대한 필연적 처벌.

- 유대교적 정결 사상과 기독교 윤리의 결합.

책임 있는 유산

- 공동체가 영적 유산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거룩함을 실천해야 함.

26-1학기 공동서신(김문경)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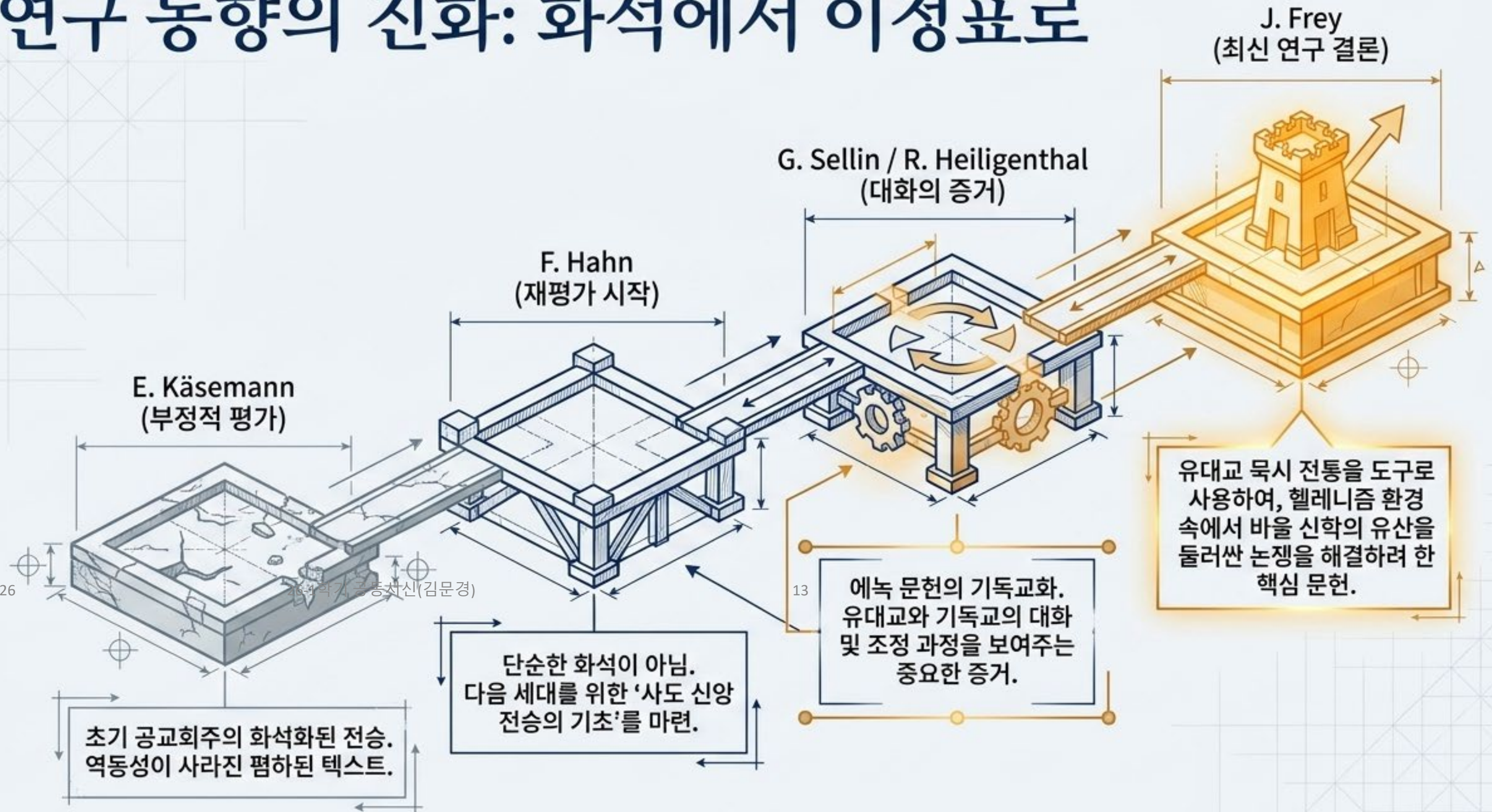
5/4/2026



연구 동향의 진화: 화석에서 이정표로

5/4/2026

26-4학기 공통차신(김문경)



결론: 초기 기독교 신앙의 전략적 이정표

유다서는 단순한 이단
논박 문서가 아닙니다.
바울 신학이 오용되고
반율법주의가 교회의
심장부를 파고들던
위기의 시기에,
유다서는 유대교 묵시
전승이라는 견고한
벽돌을 가져와
사도적 신앙이라는
요새를 구축했습니다.



이 작은 편지는
헬레니즘과 유대교의
경계에서, 교회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단의 침투로부터
'단번에 주신 믿음'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완벽한
영적 방어 설계도입니다.